

전시명 : Prima Donna

전시일정 : 2005년 9월 7일 - 13일

전시장소 : 토포하우스

한문순

1976년 서울 출생

1999년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05년 현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수료

단체전

2002년 「post photo」,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03년 「사막에서 하이힐을 만나다」, 너리굴 미술관, 안성

2004년 「홍익대학교 사진학과 동문전」, 관훈갤러리, 서울

연락처

H.P 010-9967-7999

moonmox@hanmail.net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그녀의 'Untitled' 시리즈는 '복수의 정체성 (Plural Identity)'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즉 그녀에게 여성적 정체성이란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변주되는 다면체, 하나의 예고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예고의 표해이다. 마지막으로 J. 크리스티바가 '과정 속의 정체성 (Identity in Process)'이라고 부르는 유동적인 정체성이 있다. 그녀에게 여성적 정체성은 고정성과 고정성 사이 안에 부유하면서 존재하는 부정행적인 것이다. 그것은 남성적-권력적 담론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담론들과 담론들 사이를 떠다니다서 그 담론들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정체성이다.

당연한 예기지만 한 문순의 사진들이 보여주는 여성적 정체성을 직설적인 그것과 일치 시킬 수는 없다. 만일 그랬다면 그녀는 자신의 고유한 예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역할 연기가 아니라 고정적인 셀프 포트레이트의 방식을 취했을테니까. 마찬가지로 복제적 정체성 또한 한 문순의 여성적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그러기에는 그녀가 연기하는 역할들이 너무 다양하고 소박하고 또 진솔하다. 반면에 C. 서면의 여성적 정체성은 한 문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옷 갈아입기의 역할 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하는 방법에서 그렇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표면적 유사성 속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C. 서면이 역할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성적 정체성은 그 역할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무수히 얼굴을 바꾸는 그 정체성 속에는 예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들은 예고의 해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고의 변주 혹은 복수의 예고들을 보여준다. (W. 벨쉬, '실미적으로 시유하기'), 그러나 한 문순의 역할 사진들 속에서 서면적 특별한 예고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녀의 예고는 난수도 복수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녀의 예고는 역할에 따라서 그때그때 태어나는 부정행적이고 비정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한 문순의 정체성은 크리스티바의 유동적 정체성에 보다 더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크리스티바의 여성적 정체성이 대 남성적 적극성을 띠는 것이라면 한 문순의 사진들 속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징후가 없다. 그렇다면 한 문순이 역할 연기의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적 정체성이란 어떤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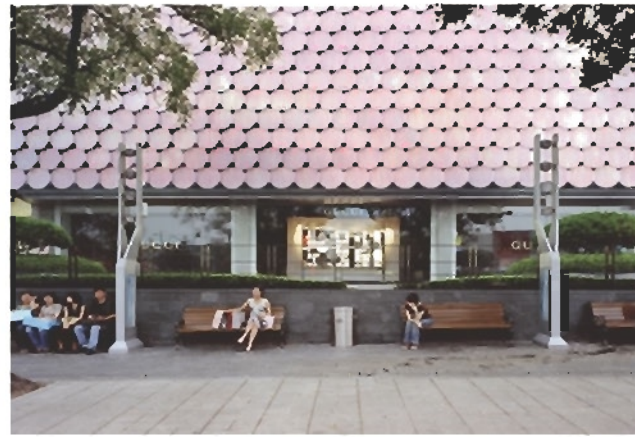


정체성과 여성성 그리고 친화력

한 문순의 사진들은 셀프 포트레이트들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영국적 셀프 포트레이트들이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배우처럼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면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 속의 여성들로 자신을 변주시킨다. 그렇게 역할 연기를 보여주는 그녀의 사진들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읽힐 수가 있다. 우선 그녀가 연기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직업들이 경제 사회적인 차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과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비판적 시선은 그녀가 평범한 생활 속의 여성들을 또한 보여줌으로써 자기 앞의 삶을 당당히 담당하는 동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으로 바뀐다. 또는, 예컨대 수녀복을 입은 사진이 그러하듯, 그녀의 사진들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저마다 혼자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내면의 내러티브를 짐작으로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의 사진들은 어디까지나 셀프 포트레이트들이고 셀프 포트레이트는 그것이 어떤 표현방식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 문순의 사진들도 정체성 그것도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성적 정체성이란 어떤 것일까?



중 도시적이기는 하지만 정체성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 정체성 (Traditional Identity)'이 있다. 근대적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정체성은 누구나 알듯이 불변하는 예고, 지아라고 부르는 자기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는 '복제적 정체성 (Reproductive Identity)'이다. 전통적 정체성과 대극적 관계에 있는 이 정체성을 전범적으로 보여주는 건 잘 알려진 A. 워홀의 'M. 몬로 시리즈'일 것이다. 이 작품은 소위 스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스타는 물론 현대인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자기복제적 재생산할. 요컨대 원본 없는 허구의 재생산물임을 신랄하게 폭로한다. 이 대극적 양축 사이 어느 지점에 잘 알려진 C. 서면의 초기사진들이 있다. 여성적 정체성이



우 유사해 보인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옷 갈아입기의 역할 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하는 방법에서 그렇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표면적 유사성 속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C. 서면이 역할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성적 정체성은 그 역할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무수히 얼굴을 바꾸는 그 정체성 속에는 예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들은 예고의 해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고의 변주 혹은 복수의 예고들을 보여준다. (W. 벨쉬, '실미적으로 시유하기'), 그러나 한 문순의 역할 사진들 속에서 서면적 특별한 예고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녀의 예고는 난수도 복수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녀의 예고는 역할에 따라서 그때그때 태어나는 부정행적이고 비정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한 문순의 정체성은 크리스티바의 유동적 정체성에 보다 더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크리스티바의 여성적 정체성이 대 남성적 적극성을 띠는 것이라면 한 문순의 사진들 속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징후가 없다. 그렇다면 한 문순이 역할 연기의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적 정체성이란 어떤 것일까?



러한 부정적 징후가 없다. 그렇다면 한 문순이 역할 연기의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적 정체성이란 어떤 것일까?

Advertisement for Culture Space phôs[fôs] featuring a menu of services like Studio, Cafe, Meeting Rooms, and Party Party,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map.

Advertisement for e-현상소 (e-Photo Studio) featuring digital photo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www.webhard.co.kr, www.e-photo.or.kr), and a list of services like printing and scanning.